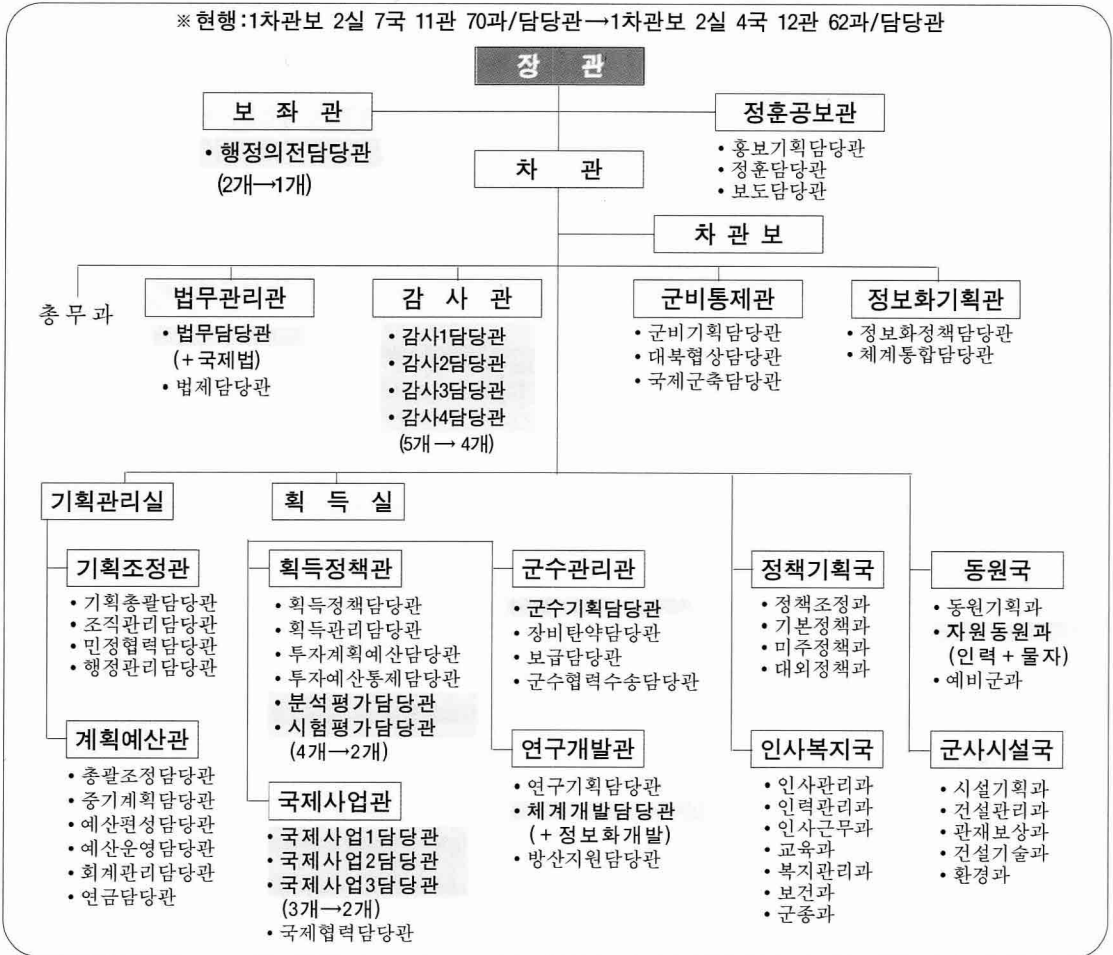


국방부 조직 개편

- 1국(인사국 + 복지근무국 → 인사복지국), 1관(분석평가관), 8개과 통·폐합

개편조직도(직제개정안상)

※ 현행 : 1차관보 2실 7국 11관 70과/담당관 → 1차관보 2실 4국 12관 62과/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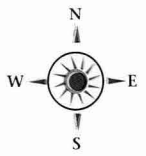
국방 부는 제2차 정부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1국·1관·8개과를 통·폐합하고, 81명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였다.

국 단위 기구는 인사국과 복지근무국을 통합하여 인사복지국으로 하고, 획득실 밑의 분석평가관을 폐지하는 것이며, 과단위 기구는 보좌관 밑의 행정담당관과 의전담당

관을 통합하는 등 8개과 규모를 감축하는 것이다.

인력감축은 통·폐합 대상부서에서 감축되는 인력, 총무과 영선기능의 근무지원단 이관에 따른 기능직 감축인력 등을 포함하여 81명 수준이 된다.

국방부에서는 앞으로 조직 개편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조기에 업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군 항공작전 사령부 창설

- 미래지상전을 주도할 육군의 핵심 전력으로 부상

항공 사령부가 4월 20일 항공작전사령부로 부대 구조를 개혁하며, 장차전을 지배할 육군의 핵심전력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항공사령부는, 기존의 제대별 분산 및 지상부대 지원 위주의 소극적인 항공전력운용에서 전략적 및 작전적 전투위주의 공세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육군항공전력을 통합하여 항공기동여단과 강습여단 등 제병과 기능을 갖춘 항공작전사령부로 개편되어 장차전의 특징인 입체고속 기동전 수행의 핵심부대로 출범한다.

이 같은 항공부대 구조 개편은 21세기 전략환경의 변화 및 장차전 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대구조를 개혁하여, 육군항공 조직의 효율성과 경제성 제고를 통해 이른바 현존전력을 극대화한다는 국방개혁의 목표아래 강력하게 추진되어 왔다.

이는 현재의 항공전력 운용체제를 분석한 결과 각 제대별로 항공전력을 보유, 소규모 단위로 분석 운용함으로써 전력소요 및 정비/유지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통합전투력 차원의 기동전 수행부대가 미편성되어 유사시 공중강습부대의 편성 및 운용시 작전 적응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점과 앞으로 입체고속 기동전 수행을 위하여 육군항공전력을 공세적/적극적으로 집중 운용하겠다는 국방개혁 방향에 따라 추진된 결과이다.

따라서 항공작전사령부는 항공기동전 수행을 위해 항공기동여단, 공중강습여단 등 제병협동부대를 편조하여, 독립작전 수행 능력을 보유하게 됨은 물론, 우리의 산악과 하천 등 어떠한 지형적 조건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헬기의 고속기동력과 강력한 화력을 이용하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항공전력 위주의 제병협동작전을 주도하게 된다.

또한, 적지 중심지역에 항공전투력을 집중 운용하여 적의 작전체계를 와해시키는 한편, 적의 작전적 중심이나 결



헬기 레펠로 적진 깊숙히 침투하는 용사들

정적인 지역을 기습적으로 타격·확보함으로써, 적을 심리적으로 마비시켜 지상기동부대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입체적 전투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항공작전사령부는 유사시 기갑 및 기계화·포병부대와 편조하여 입체고속기동전을 수행하는 등 헬기와 보병 및 제병과가 통합되어 공세주축의 핵심전력으로 운용되며, 권역별·축선별 항공작전을 수행하게 되어 적이 가장 두려워 하는 육군의 최정예부대로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평시에는 국민의 군대로서 산불진화와 홍수 피해복구, 긴급 인명구조, 의무후송 등 각종 재해,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민지원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더욱 앞장서게 된다.

제2차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 심의회」 개최

- 항공통합법인 정부지원 방안 등 강구

지난 4월 22일 김종필 국무총리 주관으로 총리실 대회의실에서 제2차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 심의회」가 개최되었다.

금번 정책심의회에는 김종필 국무총리외에 재정경제부, 국방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장관, 기획예산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측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최동환 국방과학연구소장, 장근호 항공우주연구소장, 이선 산업연구원장, 서울대 노오현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홍창선 교수 등 13명의 위원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항공우주산업분야 중장기 기본 계획인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과 "통합법인 설립추진 현황 및 정부지원대책"을 심의·의결하고, 국방부의 "고등훈련기(KTX-2)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금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항공우주산업관련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현재 업계간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항공통합법인이 향후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항공우주업체로 건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물량 창출 등 정부에서 지원 가능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김총리는 고등훈련기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소요 예산지원 등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조할 것과 동 사업에서 확보한 기술이 우리 나라 항공기산업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발전적 연계 방안을 모색·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번 정책심의회 개최를 통해 항공우주산업의 중장기 청사진이 마련되고, 국제경쟁력있는 항공통합법인이 조기

에 설립되며 고등훈련기사업(KTX-2)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21세기 지식기반 신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발전 기반이 조기에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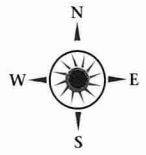
금번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과 관련

- * 2005년까지 선진항공업체의 주요 부품품 생산, 고등훈련기 및 군용헬기의 대체기종인 다목적헬기 등을 개발하여 항공기 설계·생산 능력 확보
- * 2015년까지 중소형항공기, 전투기, 차세대헬기 등의 개발을 통해 체계종합 능력을 구축하고 자주국방 기틀 마련
- * 2003년까지 독자적인 실용위성 설계 능력 확보, 2005년까지 국내기술로 저궤도위성 및 발사체 독자개발, 2015년 아·태지역 우주산업 중심국가 및 세계 10위권내 진입기 위한 과학로켓·과학위성개발 등 기초기술 및 기반사업 추진
- * 상기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부품소재 개발기반 구축, 효율적인 생산체제 및 연구개발체제 확립, 산업활성화를 위한 수요 창출 등 육성지원시책 수립
- *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 심의회를 정례화하여 항공우주관련 정부 정책의 조정기능 강화, 운영위 산하에 분과위 설치 등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구축, 금년 6월까지 분야별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

■ 통합법인 지원대책과 관련

- * 동 법인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항공우주산업 '특정사업자'



및 '전문화 업체'로 지정

- * 개발비의 경우 군수사업은 전액, 민수사업은 50% 수준 지원
- * 통합법인을 포함 국내 항공기산업계의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군용항공기의 소요 물량 및 시기 등을 조기 확정하고 민항기 분야 생산물량을 적극 창출
- * 동 법인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경영정상화 시점까지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에서 상당부분을 출자 전환

■ 고등훈련기사업 관련

- * 동 사업을 통해 항공기 독자개발 능력 확보 기준대비 제작/생산기술 95%, 시험평가기술 80%, 설계/개발기술 70%를 확보하는 초음속급 항공기의 종합적인 개발 능력 확보
- * 전투기급 전체개발기술 이전을 美 정부로부터 승인받아 추진, 기술이전이 제한되는 비행제어 및 소프트웨어

어개발은 국내기술진이 해외 업체개발 전 분야에 참여하여 개발기술을 확보

- * 향후 동급 항공기 수출시 국내 순조달 가격의 일정수준을 기술료로 부과하여 정부투자비 환수 예정
- * 정부는 소요예산중 70%를 국방부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 추진
- * 고등훈련기(KTX-2) 사업 개요
 - 용도: 고등 비행훈련용 및 경공격용 제트기 (마하 1.2수준, 94대)
 - 사업기간: '92~'95(탐색개발), '97~2005(체계개발), 2006~2010(양산)
 - 사업규모: 개발비 약 1조7,000억원 (정부 70%, 민간 30%)
 - 생산방식: 국제협력개발생산 (기술협력선: 美 록히드마틴)
 - 참여업체: 삼성항공(주계약업체), 대우중공업, 대한항공, LG정밀, 한화 등

KF-16 추가 생산 관련

- 20대 규모로 소요재원 정부지원 방안은 미정

정부 는 항공산업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항공 3사를 통합하여 단일 통합법인체 설립을 추진중에 있으나, KFP 생산종료 이후 KTX-2 고등훈련기 양산이 본격화 될 때까지 항공산업 생산 시설 및 기술 인력의 유희화를 방지하기 위해 KF-16 추가생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의 진행사항을 요약하면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 심의회와 관련부처 협의 결과, KF-16 추가생산 소요물량을 창출 지원키로 하였으며, 소요재원의 정부 지원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추가생산 규모는 실제 생산출고 가능기간을 고려시 20대 규모가 적절한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소요재원의 정부지원 방안은 미합의 되었다.

국방부는 국가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물량창출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KF-16 20대를 추가생산시 전력운용할 계획이나, 소요예산은 항공산업육성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임을 감안하여 기계화된 중기 방위력개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유관부서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